

#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과 배우자 지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

## Relationships among Expectant Mothers' Prenatal Attachment,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권수현(Su-Hyun Kwon), 이승연(Seung Yeo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1) investigating expectant mothers' prenatal attachment according to variables (age, gestational weeks, perceived health condition, anticipating the gender of the fetus, marriage duration, and parity), (2) analyzing correlations among their prenatal attachment,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and (3) examining the role of prenatal attachment as a mediator between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For this purpose, 221 expectant mothers living in Seoul completed a 55-item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variables, gestational weeks, perceived health condition, marriage duration, and par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s for the overall prenatal attachment and subordinate factors. Secon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expectant mothers' prenatal attachment and spousal support and between their prenatal attachment and parenting efficacy. Third, the expectant mothers' prenatal attachment proved to mediate between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prenatal attachment and spousal support during the pregnancy perio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expecting parents to enhance prenatal attachment and spousal support and to conduct follow-up studie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

▲주제어(Key Words) : 예비 어머니(expectant mothers), 산전애착(prenatal attachment), 배우자 지지(spousal support), 부모효능감 (parenting efficacy)

### I. 서론

어머니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며(Laxton-Kane & Slade, 2002; Cannella, 2004),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ielawska-Batorowicz & Siddiqui, 2008). 태아와 예비 어머니의 관계

(maternal-fetal relationships)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산전애착(prenatal attachment)은 예비 어머니와 태아 사이의 상호적 과정으로 예비 어머니가 태아에 대해 형성하는 독특한 애정적, 정서적 유대이다(Müller, 1989). 또한 산전애착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낮은 산전애착은 임신 중 예비 어머니 자신과 태아의 산전

---

\* Corresponding Author : Seung Yeo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2628, E-mail: dearsy@ewha.ac.kr

관리(산전 검사, 체중 관리, 금연 등)의 결핍으로 이어지며, 임신 위험(pregnancy risk)과 출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ndgren, 2001). 따라서 낮은 산전애타침은 태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Pollock & Percy, 1999). 최근 들어 산전애타침은 임신과 정적 적응과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Chung, Kang, & Lee, 2012), 출산 후 어머니와 자녀의 초기 애착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Callister, 2002).

산전애타침은 임신 과정 중에 시작되는데, 임신 3기가 되면 태아도 어머니의 목소리나 활동의 패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호적 관계를 맺게 된다.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는 출산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출산 이전인 자녀가 태아였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Alhusen, 2008). 예비 어머니는 임신 5개월경이 되면 태아의 첫 태동을 느끼게 되고, 그 이후에 산전애타침이 더 강해진다. 비로소 태아를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게 되고, 태아에 대한 애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게 된다(Chung, 2004). 즉, 예비 어머니는 태동을 통해 태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과 애정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임신 상황에 대한 단순한 적응 관련 연구에서 벗어난 예비 어머니의 태아에 대한 애착 연구는 간호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Siddiqui, Hägglöf, & Eisemann, 1999). Cranley(1981)는 산모와 태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MFAS(Maternal-Fetal Attachment Scale)를 개발하였으며, 산전애타침을 태아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자신과 태아의 구별(differentiation of self from fetus), 태아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 with fetus), 태아의 특성과 의도로 귀속하기(attributing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to fetus), 자기 제공(giving of self), 역할 취득(role-taking), 보금자리 되어주기(nesting)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후 Müller(1993)는 Bowlby의 애착이론에 근거를 두고, PAI(Prenatal Attachment Inventory)를 개발하여 산전애타침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산전애타침을 상상하기(fantasy), 상호작용하기(interaction), 애정 갖기(affection), 자신과 태아 구별하기(differentiation of self from fetus), 기쁨 나누기(sharing pleasure)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애착과도 관련이 있지만 모성 역할 획득과 관련이 많은 MFAS(Grace, 1989, as cited in Chung, 2004)에 비해 PAI의 하위요인은 예비 어머니와 태아의 애정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산전애타침을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üller(1993)의 PAI를 사용하여 산전애타침을 측정하고자 한다.

산전애타침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산전애타침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즉 산모의 연령, 출산경력, 계획임신 여부, 임신주수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Cranley(1981)는 산전애타침이 산모 연령이나 임신 횟수,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며, Kemp and Page(1987)는 고위험군 예비 어머니 집단과 일반 예비 어머니 집단의 산전애타침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Siddiqui, Hägglöf, and Eisemann(1999)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나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태아와의 애정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Lindgren(2001), Laxton-Kane and Slade(2002), Cannella(2004), Sjögren et al.(2004)의 산전애타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산전애타침은 임신주수, 산모 연령, 출산경력 등의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 초기보다 임신 후기에 산전애타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태동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산모의 연령도 산전애타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높은 산전애타침을 보였으며, 예비 어머니가 초산인 경우에 출산경력이 있는 경우보다 산전애타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애타침의 하위요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Siddiqui, Hägglöf, and Eisemann(1999)은 임신 후기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타침 하위요인 중 애정 갖기, 태아와 자신 구분하기, 상호작용하기가 상상하기와 기쁨 나누기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으며, Siddiqui and Hägglöf(2000)는 예비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산전애타침 하위요인 중 상상하기 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출산경력이 있는 예비 어머니는 출산경력이 없는 예비 어머니에 비해 기쁨 나누기 하위요인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예비 어머니는 임신 과정 중에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부모 역할 또는 양육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한 감정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태아에 대한 긍정적인 산전애타침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즉 부모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전애타침은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Siddiqui, Hägglöf, and Eisemann(2000)의 연구에서는 태아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이고 태아에 대해 더 많이 상상했던 예비 어머니가 출산 이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더욱 적극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전애타침은 어머니와 자녀의 초기 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 애착은 영아의 생존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자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Siddiqui, Hägglöf, & Eisemann, 1999). 실제로 태아에 대해 더 많은 애정을 표현했던 예비 어머니는 태아에 대한 애정 표현이 적었던 예비 어머니에 비해 어머니 역할에 대해 더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실제로 출산 후 역할 적응도 잘 이루어졌다(Liefer, 1977, as cited in Siddiqui & Hägglöf, 2000).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임신 중 예비 어머니의

태아에 대한 산전애착이 출산 이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의 민감성을 비롯해(Siddiqui, Hagglof, & Eisemann, 2000)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Fowles, 1996, as cited in Vedova, Dabrassi, & Imbasciati, 2008). 부모효능감은 부모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 갖는 자신감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고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Moon, 1999; Ahn & Park, 2002). 특히 예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는 밑거름이며, 자녀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창의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 Jang, 2009). 따라서 예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산전애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은 배우자가 얼마나 임신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임신 과정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이므로 예비 어머니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물질적이거나 정보적인 도움, 신체적인 편안함, 가치 인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86). Caplan(1974)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란 '평상시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이며, 애정, 승인, 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as cited in Sim, 1993).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지지는 임신 중에 부모 역할 적응(Dormire, Strauss, & Clarke, 1989)이나 신체적 건강(Zelkowitz et al., 2004)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예비 어머니들은 대가족 속에서 보살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됨의 모델링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보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가족구조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 형태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할 때, 예비 어머니에게 배우자의 지지는 어떤 사회적 지지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의 지지는 부부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예비 어머니로 하여금 임신 현상에 대해 가치감을 느끼도록 하며(Ahn, 1985), 임신 기간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Mercer & Ferketich, 1988). Cranley(1981)는 예비 어머니가 보고한 유용한 사회적 지지의 양과 산전애착은 정적상관이 있으며, 스트레스 지각과는 부적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Baek(2009)도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산전애착이 높게 나타나며, 배우자의 지지가 임신 중 예비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태아에 대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한다고 밝혔다. 즉, 임신 기간 중 배우자의 지지는 임신 스트레스를

줄이고(Sim, 1993), 임신적응을 돕는다(Norbeck & Anderson, 1989).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며, 임신 적응을 쉽게 하여 태아에 대한 거부감을 적게 표현한다는 연구결과(Westbrook, 1978, as cited in Jeong, 2004)를 통해 예비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가 태아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지와 산전애착이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역할이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때(Bronfenbrenner, 1986), 예비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는 부모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Belsky and Vondra(1989)도 좋은 부부 관계는 부모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부모 역할 기술과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as cited in Park & Rha, 2003). 그러나 이전의 산전애착과 배우자 지지, 부모효능감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배우자의 지지가 직접적으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산전애착이 매개적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중 예비 어머니가 배우자의 지지를 받게 되면 산전애착이 높아지고, 태아에 대한 애정이 부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산전애착이 생애 초기 애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 경험이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볼 때(Müller, 1989), 산전애착에 대한 교육학적, 발달적 접근 및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머니와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 출산 이후에 기울이는 노력에 앞서, 임신 중 태아와의 애착 형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배우자의 지지 등을 포함한 예비 부모교육이 개발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예비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Kang & Bae, 2008), 대학생(Jeon, 2001; Lee, 2003) 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주제는 아동발달, 부모역할, 양육방법과 같이 출산 후의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기존의 예비 부모교육에서는 산전애착이나 배우자의 지지와 같은 임신기에 특히 필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이미 산전애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산전애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Yakasem & Chaiyasung, 2012)가 시도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산전애착을 매개로 하여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는 과정은 긍정적인 부

부 및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 부모 되기 전과 후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산전애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며, 그마저도 의료나 간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부모 되기를 준비하는 예비 부모나 그들을 위한 교육에 시사하는 부분이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신부를 예비 어머니로 인식하여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에 대해 분석해보고, 산전애착과 배우자의 지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예비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산전애착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산전애착 형성과 관련 있는 변인을 찾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전애착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예비 아버지의 지지와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상시키는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 어머니의 변인(연령, 임신주수,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기대하는 태아의 성별과 실제 태아의 성별 일치도, 결혼기간, 출산경력)에 따라 산전애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과 배우자의 지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은 배우자 지지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산부인과 2곳과 문화센터의 태교 교실, 임신부 요가원, 출산 용품 박람회 등에서 만난 예비 어머니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임신 20주에서 40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렇게 연구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임신 20주 이후가 임신 안정기로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여 태아에 대한 산전애착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관련 연구(Siddiqui, Hägglöf, & Eisemann, 1999; Siddiqui & Hägglöf, 2000)에 근거한 것이다. 최종 연구대상은 예비 어머니 221명이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평균 31.46세( $SD = 3.39$ )이었으며, 30세

Table 1. Demographic and Pregnancy-Related Data of the Subjects

(N = 221)

Variable	n(%)	Variable	n(%)		
Age	< 30	59(26.7)	Marriage duration	< 1 year	74(33.5)
	30 - 35	125(56.6)		1 - 5 years	118(53.4)
	> 35	36(16.3)		> 5 years	29(13.1)
	Non-response	1( .4)	Parity	Primipara	169(76.5)
Gestational weeks	20 - 24	37(16.7)		Multipara	49(22.2)
	25 - 32	91(41.2)		Non-response	3( 1.3)
	33 - 40	91(41.2)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27(12.2)
	Non-response	2( .9)		College graduate	43(19.5)
Perceived health condition	Below average	55(24.9)		University graduate	99(44.8)
	Good	62(28.1)		Graduate degree	52(23.5)
	Very good	101(45.7)	Employment status	Homemaker	105(47.5)
	Non-response	3( 1.3)		Employed	116(52.5)
Anticipating the gender of the fetus	Match	50(22.6)	Family income	< ₩ 3,000,000	61(27.6)
	Mismatch	46(20.8)		₩ 3,000,000 - 3,999,999	51(23.1)
	No matter	123(55.7)		₩ 4,000,000 - 4,999,999	42(19.0)
	Non-response	2( .9)		≥ ₩ 5,000,000	66(29.9)
				Non-response	1( .4)

이상 35세 미만인 125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주수는 평균 31주( $SD = 5.47$ )이었으며, 25-32주(7-8개월)와 33-40주(9-10개월)가 각기 91명(41.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양호함'으로 응답한 경우가 101명(45.7%)으로 가장 많았다. 기대하는 태아의 성별과 실제 태아의 성별 일치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대하는 태아의 성별이 없는 경우인 '상관없다'가 123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일치와 불일치의 경우는 각기 50명(22.6%), 46명(20.8%)으로 유사하였다. 결혼기간은 1-5년이 118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경력은 처음인 경우가 169명(76.5%)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대졸이 99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유무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116명(52.5%)으로 주부인 경우(105명, 47.5%)보다 약간 많았다.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전 범주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산전애착과 배우자의 지지,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예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예비 어머니의 연령, 임신주수,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기대하는 태아의 성별과 실제 태아의 성별, 결혼기간, 출산경력, 교육정도, 직업유무 등의 일반적 배경을 묻는 부분과 산전애착, 배우자 지지,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1) 산전애착 척도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Müller(1993)가 개발한 '산전애착 척도(Prenatal Attachment Inventory: PAI)'를 번안하여 영아 및 부모교육 전문가 1인의 검증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상하기, 상호작용하기, 애정 갖기,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 기쁨 나누기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문항을 예를 들면, 상상하기는 '나는 아기가 지금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와 같이 태아에 대해 기대하고 상상하는 내용이며, 상호작용하기는 '나는 뱃속에서 아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와 같이 태아와 교감하는 내용의 문항이다. 애정 갖기는 '나는 아기에게 애정을 느낀다.' 등의 태아에게 느끼는 애정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는 '나는 내 아기가 이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처럼 아기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기쁨 나누기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배에 손을 대고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와 같이 다른 사람과 태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감동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문항 수는 상상하기 6문항, 상호작용하기 5문항, 애정 갖기 4문항,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 4문항, 기쁨 나누기 3문항으

로 총 21개이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면 1점, '항상 그렇다'면 4점으로 평정(빈도)하도록 되어있다. 하위점수의 계산은 각 하위요인별 평정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산전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산전애착 척도에 대한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상상하기 .80, 상호작용하기 .74, 애정 갖기 .64,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 .67, 기쁨 나누기 .65였다.

### 2) 배우자 지지 척도

예비 어머니의 배우자 지지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ho(2003)가 House(1981)의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를 참조하여 임신부의 배우자 지지 상황에 맞도록 재작성한 '배우자 지지 척도(Spousal Support Scale: SS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사랑, 공감적 경청, 신뢰, 관심, 격려, 이해에 관한 문항이며, 평가적 지지는 공정한 평가, 인격 존중, 칭찬, 소질 인정, 가치교양, 의사존중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나 조언 등에 관한 문항이며, 물질적 지지는 필요시에 제공되는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에 관한 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매우 그렇다'면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20문항 중 5개 문항(8, 9, 14, 18, 19)은 역채점하고, 나머지 문항은 정상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배우자 지지 척도에 대한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 지지 .78, 평가적 지지 .79, 정보적 지지 .82, 물질적 지지 .66이었다.

### 3) 부모효능감 척도

예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 and Wanderman(1978)이 개발하고, Lee and Jang(2009)이 임신기 부모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부모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역할에 대한 유능감과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 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에 대해 출산 후 부모가 되었을 때를 상상하여 답하는 것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매우 그렇다'면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효능감이 높을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효능감 척도에 대한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3. 연구절차

예비 연구를 통해 도구의 적절성과 문제점, 소요시간을 검토·수정하였다.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과 배우자의 지지, 부모효능감의 관계와 매개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신 20주에서 40주 사이의 예비 어머니를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235부가 회수되어 78.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와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22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을 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해서는 예비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산전애착을 분석하고자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과 배우자 지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위해서는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이 배우자의 지지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검증법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 배우자 지지, 부모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은 평균 65.47( $SD = 10.21$ ), 배우자 지지는 80.13( $SD = 12.75$ ), 부모효능감은 25.55( $SD = 4.53$ )로 나타났다.

### 1. 예비 어머니 배경 변인에 따른 산전애착의 차이

예비 어머니의 연령, 임신주수,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기대하는 태아의 성별과 실제 태아의 성별 일치도, 결혼기간, 출산경력에 따라 산전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을 각 집단으로 구분하여, 산전애착 전체와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  검정이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예비 어머니의 변인에 따라 산전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임신주수,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결혼기간, 출산경력에 따라 산전애착 전체 혹은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임신주수에 따라서는 산전애착 전체( $F = 3.16$   $p < .05$ )와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하기( $F = 8.18$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한 결과, 산전애착 전체는 임신 20-24주 예비 어머니 집단과 33-40주 예비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호작용하기 하위요인에서는 20-24주 예비 어머니 집단과 25-32주, 33-40주 예비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3-40주의 임신 후기 예비 어머니가 20-24주의 임신 초중기의 예비 어머니에 비해 산전애착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 25-32주, 33-40주 예비 어머니는 20-24주 예비 어머니에 비해 높은 상호작용하기 산전애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따른 산전애착은 산전애착

Table 2. Expectant Mothers' Prenatal Attachment,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M(SD)$

Variables	Prenatal Attachment		Spousal Support		Parenting Efficacy
Subordinate factors	Fantasy	18.72( 3.42)	Emotional support	21.10( 3.75)	No subordinate factors
	Interaction	13.44( 3.19)	Appraisal support	21.71( 3.49)	
	Affection	10.46( 1.57)	Informational support	17.15( 4.62)	
	Differentiation	13.93( 2.05)	Material support	20.26( 3.71)	
	Sharing pleasure	8.95( 2.15)			
Total	65.47(10.21)		80.13(12.75)		25.55( 4.53)

Table 3. Expectant Mothers' Prenatal Attachment according to the Variables

M(SD)

Prenatal Attachment Variables		Fantasy	Interaction	Affection	Differentiation	Sharing pleasure	Total
Age	< 30	19.00(3.16)	13.66(3.02)	10.61(1.37)	14.05(1.92)	9.27(2.00)	66.28( 9.04)
	30 - 35	18.60(3.44)	13.39(3.04)	10.40(1.61)	13.92(2.14)	8.92(2.05)	65.34(10.39)
	> 35	18.65(3.69)	13.30(3.66)	10.41(1.71)	13.81(2.04)	8.67(2.49)	64.85(11.17)
	<i>F</i>	.27	.21	.38	.19	1.14	.28
Gestational weeks	20 - 24	17.97(3.99)	11.72(3.58) <sup>a</sup>	10.50(1.60)	13.62(2.47)	8.39(2.33)	62.26(11.77) <sup>a</sup>
	25 - 32	18.76(3.47)	13.38(3.09) <sup>b</sup>	10.33(1.75)	13.87(2.13)	8.84(2.22)	65.02(10.61)
	33 - 40	19.02(3.13)	14.19(2.90) <sup>b</sup>	10.57(1.37)	14.18(1.74)	9.29(2.00)	67.23( 8.86) <sup>b</sup>
	<i>F</i>	1.23	8.18***	.53	1.12	2.48	3.16*
Perceived health condition	Below average	17.98(3.63)	12.69(3.35)	10.09(1.77)	13.27(2.65)a	8.67(2.28)	62.60(11.93)
	Good	18.74(3.50)	13.39(2.97)	10.69(1.26)	14.36(1.55)	8.92(2.07)	66.25( 9.00)
	Very good	19.14(3.20)	13.92(3.20)	10.53(1.58)	14.09(1.85)b	9.17(2.15)	66.77( 9.66)
	<i>F</i>	2.05	2.66	2.28	4.63*	.97	3.08*
Anticipating the gender of the fetus	Match	18.82(3.04)	13.78(3.22)	10.70(1.31)	14.02(1.94)	9.02(2.11)	66.13( 9.44)
	Mismatch	18.67(3.69)	13.78(3.42)	10.16(1.73)	13.59(2.39)	8.68(2.31)	65.07(11.33)
	No matter	18.69(3.52)	13.17(3.11)	10.46(1.61)	14.01(1.98)	9.01(2.14)	65.31(10.25)
	<i>F</i>	.03	.95	1.39	.73	.41	.14
Marriage duration	< 1 year	19.40(2.96)	13.58(2.87)	10.74(1.40)	14.15(1.99)	9.46(1.78)	67.20( 8.72)
	1 - 5 years	18.46(3.32)	13.40(3.21)	10.34(1.60)	13.76(2.10)	8.97(2.05)	64.97(10.09)
	> 5 year	18.07(4.59)	13.24(3.86)	10.21(1.80)	14.07(2.02)	7.59(2.82)	63.17(13.34)
	<i>F</i>	2.33	1.14	1.94	.90	8.43*	1.90
Parity	Primipara	19.14(3.20)	13.66(3.05)	10.64(1.50)	14.05(2.01)	9.32(2.00)	66.83( 9.50)
	Multipara	17.16(3.72)	12.46(3.46)	9.77(1.67)	13.48(2.16)	7.65(2.22)	60.20(11.10)
	<i>t</i>	3.66***	2.34*	3.46**	1.72	4.99***	4.03***

\* $p < .05$ , \*\* $p < .01$ , \*\*\* $p < .001$ ; <sup>a,b</sup>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전체( $F = 3.08, p < .05$ )와 하위요인 중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 $F = 4.63,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한 결과, 산전애착 전체에서는 차이를 발생시킨 집단들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 하위요인에서는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예비 어머니 집단과 '보통 이하'로 응답한 예비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예비 어머니가 보통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예비 어머니에 비해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에서 높은 산전애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혼기간에 따른 산전애착은 하위요인 중 기쁨 나누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 = 8.43,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차이를 발생시킨 집단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출산경력에 따른 산전애착은

산전애착 전체( $t = 4.03, p < .001$ )와 상상하기( $t = 3.66, p < .001$ ), 상호작용하기( $t = 2.34, p < .05$ ), 애정 갖기( $t = 3.46, p < .01$ ), 기쁨 나누기( $t = 4.99, p < .001$ )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태아가 첫 자녀일 경우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산전애착 전체와 상상하기, 상호작용하기, 애정 갖기, 기쁨 나누기 하위요인에서 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산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 어머니의 변인은 임신주수,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결혼기간, 출산경력이며, 연령, 기대하는 태아의 성별과 실제 태아의 성별 일치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임신주수가 길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인식하며, 결혼기간이 비교적 짧고, 출산경력이 없을 때,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과 배우자 지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이 배우자 지지, 부모효능감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은 배우자 지지, 부모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첫째, 배우자 지지 전체와 산전애착 전체는 정적상관( $r = .42, p < .01$ )을 보였다. 산전애착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상상하기, 상호작용하기, 애정 갖기,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 기쁨 나누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상상하기( $r = .49, p < .01$ )와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기쁨 나누기( $r = .22, p < .01$ )와의 상관이 가장 낮았다. 배우자 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산전애착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 $r = .42, p < .01$ )와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정서적 지지( $r = .20, p < .01$ )와의 상관이 가장 낮았다. 배우자 지지의 하위요인과 산전애착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지지의 하위요인 중 물질적 지지와 산전애착의 하위요인 중 상상하기( $r = .48, p < .01$ ), 정보적 지지와 상상하기( $r = .45, p < .01$ ) 간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산전애착이 높고, 산전애착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며,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높다고 인식할 때 태아에 대해 상상하기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지지 중 물질적 지지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예비 어머니의 태아에 대한 산전애착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반면, 배우자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산전애착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하기, 기쁨 나누기, 배우자 지지의 하위요인 중 평가적 지지와 산전애착 하위요인 중 기쁨 나누기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효능감과 산전애착 전체는 유의한 정적상관( $r = .32, p < .01$ )을 보였다. 산전애착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상상하기, 상호작용하기, 애정 갖기,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 기쁨 나누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상상하기( $r = .40, p < .01$ )와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기쁨 나누기( $r = .14, p < .05$ )와의 상관이 가장 낮았다. 이는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특히 태아에 대해 상상하기를 많이 하는 예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 3. 산전애착의 매개성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예비 어머니가 느끼는 배우자의 지지가 산전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효능감은 산전애착의 영향을 받는 결과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산전애착이 배우자 지지와 부모효능감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and Kenny (1986)의 매개가설 검증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예비 어머니의 배우자 지지와 부모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산전애착의 매개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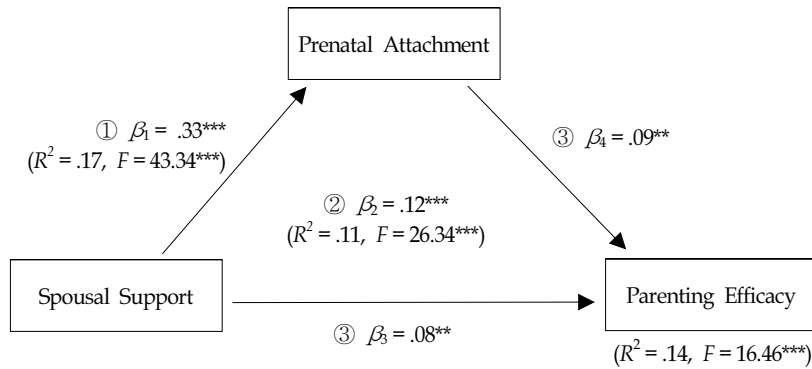
배우자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산전애착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배우자 지지( $\beta_1 = .33, p < .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로서 산전애착 변화 중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43.34, p < .001$ ). 첫 단계에서  $\beta_1$ 의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단계로 배우자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부모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배우자의 지지( $\beta_2 = .12, p < .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서 부모효능감의 변화 중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26.34, p < .001$ ).  $\beta_2$ 의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으므로 3단계로 넘어가서 배우자 지지와 산전애착을 독립변수로 하고 부모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전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Table 4. Relationships of Expectant Mothers' Prenatal Attachment with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N=211)

Variables	Prenatal Attachment						
	Total	Fantasy	Interaction	Affection	Differentiation	Sharing pleasure	
Total	.42**	.49**	.29**	.36**	.34**	.22**	
Spousal Support	Emotional support	.20**	.28**	.13	.18**	.24**	.01
	Appraisal support	.29**	.36**	.20**	.24**	.25**	.13
	Informational support	.38**	.45**	.30**	.34**	.23**	.24**
	Material support	.42**	.48**	.29**	.35**	.37**	.29**
Parenting Efficacy	.32**	.40**	.24**	.25**	.30**	.14*	

\* $p < .05$ , \*\* $p < .01$





\*\* $p < .01$ , \*\*\* $p < .001$

Figure 1. Mediation of Prenatal Attachment

(+)의 영향이 있고, 부모효능감의 변화 중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16.46, p < .001$ ). 따라서  $\beta_4$ 가 유의해야 한다는 세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이 세 조건이 충족되고  $\beta_2 > \beta_3$ 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산전애착이 배우자 지지와 부모효능감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매개변인이 추가된 모형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이므로 나타나 산전애착이 배우자의 지지와 부모효능감을 ‘부분매개’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산전애착을 알아보고, 산전애착과 배우자 지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산전애착의 매개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논의하고,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 발달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산전애착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임신주수,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결혼기간, 출산경력에 따라 산전애착 전체 혹은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임신주수가 길수록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 전체와 하위요인인 상호작용하기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 초기보다 후기에 산전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Lindgren(2001), Laxton-Kane and Slade(2002), Cannella(2004), Sjögren et al.(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인데, 태동을 느끼고 태아를 만날 시기가 가까워갈수록 예비 어머니가 태아와 상호작용을 많이 시도하고 애착을 강화하게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예비 어머니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산전애착 전체와 하위요인인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

점수가 높았다. 이는 낮은 위험군의 산모가 산전애착이 높다는 Eswi and Khalil(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지만 임신부의 신체적 불편감과 산전애착이 관계가 없다는 LoBiondo-Wood(1985)의 연구결과나 고위험군 예비 어머니 집단과 일반 예비 어머니 집단의 산전애착에 차이가 없다는 Kemp and Page(198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혼기간에 따라서도 산전애착에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기쁨 나누기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았다. 결혼기간 변인에 대한 산전애착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결혼 초기에는 배우자와의 대화나 정서적인 감정 교류가 많아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Kim(2009)의 연구결과나 결혼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이 어릴수록 부부간의 대화의 빈도가 높다는 Lee(2010)의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결혼 초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 배우자 및 주변인들과 태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임신에 대한 기쁨을 더 많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산경력에 따라서는 산전애착 전체와 상상하기, 상호작용하기, 애정 갖기, 기쁨 나누기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태아가 첫 아이일 경우에 둘째 이상일 경우보다 높은 산전애착을 보였다. 이는 Laxton-Kane and Slade(2002), Cannella(2004)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지만, 임신횟수와 산전애착이 관련이 없다는 Cranley(1981)의 연구결과와 초산일 경우 산전애착이 낮게 나타난다는 Mikhail et al.(1991)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가능한 추론 중 하나는 연구가 행해진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임신과 출산도 그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출산경력과 산전애착도

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2000년 이후의 연구결과와 2000년 이전의 연구결과가 상반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도 산전애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예비 어머니의 연령은 산전애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basi et al.(2012)의 연구에서 예비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산전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평균점수의 분포로 살펴보면, 예비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산전애착 점수가 높아지는 미세한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예비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산전애착이 높게 나타난다는 Siddiqui, Hägglöf, and Eisemann(1999), Lindgren(2001), Laxton-Kane and Slade(2002), Cannella(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예비 어머니가 기대하는 태아의 성별과 실제 태아의 성별 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도 산전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자녀의 성별을 상관하지 않고 출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KBS News, 2013. 2. 27), 본 연구에서 태아의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 이상인 55.7%로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다. 즉, 예비 어머니는 특별히 원하는 태아의 성별이 없거나 태아의 성별이 원하는 성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태아에 대한 애착을 발달시킨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1>의 결과를 종합하면, 산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 어머니의 변인은 임신주수, 스스로가 인식하는 건강상태, 결혼기간, 출산경력으로 나타나 예비 어머니의 건강이나 심리적 상태와 산전애착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예비 어머니가 태아의 존재를 뚜렷이 인식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며, 배우자와의 대화나 정서적 감정 교류가 많은 결혼 초기에 임신을 하고, 태아가 첫 아이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없어 태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경우에 산전애착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어머니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며, 결혼 후 적절한 시기에 2세를 계획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둘째 이상인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도 좀 더 산전애착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둘째, 산전애착과 배우자 지지 및 부모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기 정적상관이 있었다. 먼저 산전애착과 배우자 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산전애착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은 배우자 지지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배우자의 지지가 산전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Baek(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부부관계의 질이나 배우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산전애착 간에 정적상관이 있다는 Cranley(1981), Chung(2004), Abasi et al.(2012), Chung, Kang, and Lee(2012)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예비 어머니가 태아에 대해 상상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배우자의 지지를 통해 예비 어머니가 정서적인 안정을 하게 되고 태아에 대해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 전체 및 하위요인과 산전애착 전체도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배우자의 지지 중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산전애착이 높았다. 산전애착 하위요인과 배우자 지지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서는 배우자가 물질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많이 할수록 예비 어머니는 아기에 대해 상상하기를 많이 하고, 예비 어머니가 아기에 대해 상상하기를 많이 할수록 배우자에게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배우자의 지지 중 물질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나 평가적 지지보다 산전애착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이는 도구 자체의 물질적 지지에 대한 질문 문항이 물질적 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 배려와 돌봄의 정서적 지지도 포함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고, 정서적 지지에 대한 4문항 중 극단적으로 표현된 역채점 문항(예: '내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었다')이 3개 있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정서적 지지와 상호작용하기 및 기쁨 나누기, 평가적 지지와 기쁨 나누기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비 어머니가 느끼는 우울이나 스트레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태아와의 애착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Lindgren, 2001; Abasi et al., 2012). 임신기간 동안 배우자와 갈등이 적고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아기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태아에 대한 애착형성을 잘 하게 마련이다. 배우자의 지지가 높으면 임신이라는 특수한 혹은 새로운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산전애착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 어머니와 태아의 안녕과 산전애착을 증진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비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예비 부모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Won and You(2006)에 의하면, 임신기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일정 기간 안에 확실하게 부모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이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다. 예비 어머니와 예비 아버지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 준비하는 경험을 갖는다면, 자녀와 바람직한 애착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예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산전애착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된 것을 고려해 본다면(Yakasem & Chaiyasung, 2012), 예비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지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예비 아버지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산전애착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전애착과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전애착이 높은 예비 어머니가 양육자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Siddiqui, Hägglöf, & Eisemann, 1999), 어머니 역할에 대해 더 높은 자신감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Lieifer, 1977, as cited in Siddiqui & Hägglöf, 2000)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산전애착의 하위요인인 상상하기, 상호작용하기, 애정 갖기, 자신과 태아 구분하기, 기쁨 나누기 모두와 부모효능감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는데, 그 중 상상하기와 부모효능감 간의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iddiqui and Hägglöf(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태아에 대해 더 많이 상상했던 예비 어머니가 출산 이후 실제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적극적이었다고 밝혀졌다. 정리하면, 태아에 대해 생각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함께 할 일들에 대해 계획하는 상상하기가 자신이 앞으로 유능한 엄마가 될 것이라는 부모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산전애착은 예비 어머니의 임신 중 발달과업 성취와 적응을 돕고, 태아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임신 초기부터 산전애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신 중에 산전애착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효능감을 높이며, 출산 후 자녀와의 애착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매개적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산전애착이 배우자 지지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지지가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지지가 산전애착을 높이고 높아진 산전애착을 통해 부모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임신 중 예비 어머니가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나 복잡한 정서 상태에 대해 배우자가 이해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배려하고 지원하게 되면, 예비 어머니는 태아에 대해 긍정적인 산전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 어머니 산전애착의 중요성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예비 아버지 지지의 역할 및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모효능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Cutrona & Troutman, 1986; Johnston & Mash, 1989; Moon, 1998; Yi & Choi, 2010)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모효능감 간에 정적상관이 있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임신기에 예비 아버지가 예비 어머니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비 아버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에 대해 알아보고 산전애착과 배우자 지지 및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과 지원, 예비 아버지를 포함한 예비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신부들이 많이 모이는 산부인과나 임신 및 출산용품 박람회, 임신부 요가원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서 대상을 수집하였다. 특히, 임신 및 출산용품 박람회에는 예비 아버지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출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예비 어머니나 예비 아버지가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연구대상을 확보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현재 예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미래의 주역이 될 영유아들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예비 부모교육을 독려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예비 부모를 위한 산전애착 향상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검증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basi, E., Tahmasebi, H., Zafari, M., & Nasiri Takami, G.(2012). Assessment on effective factors of maternal-fetal attachment in pregnant women. *Life Science Journal*, 9(1), 68-75.
- Ahn, H. R.(1985).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on stress relief of primigravid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Ahn, J. Y., & Park, S. Y.(200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 53-68.
- Alhusen, J. L.(2008). A literature update on maternal-fetal attachment.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37(3), 315-328.
- Baek, H. J.(2009). *Mediation effect of recognition of spousal support and emotional state on the relationship of pregnant women's attachment to mother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 cond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ielawska-Batorowicz, E., & Siddiqui, A.(2008). A study of prenatal attachment with Swedish and Polish expectant mothers.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36(4), 373-384.
-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Callister, L. C.(2002). Comments: Relationships among maternal-fetal attachment, prenatal depression, and health practices in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27(1), 59.
- Cannella, B. L.(2004). Maternal-fetal attachment: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0(1), 60-68.
- Cho, H. J.(2003). *A study of predicting postpartum depression and the recovery factor from prepartum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Chung, M. R., Kang, S. K., & Lee, H. J.(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quality and parent-fetal attachment by pregnant coup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4), 51-61.
- Chung, Y. S.(2004). Influencing factors on prenatal attachment.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7(1), 38-49.
- Cranley, M. S.(1981). Development of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0(3), 281-284.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507-1518.
- Dormire, S. L., Strauss, S. S., & Clarke, B. A.(1989).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the parental role in first-time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18(4), 327-337.
- Eswi, A., & Khalil, A.(2012). Prenatal attachment and fetal health locus of control among low risk and high risk pregnant women. *World Applied Sciences Journal*, 18(4), 462-471.
- Jeon, S. Y.(2001). Program development for pre-parent education.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6(3), 73-95.
- Jeong, Y. S.(2004).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usband-wife relationship and prenatal attachment according to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0(3), 210-217.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ang, K., & Bae, E.(2008). The development of pre-parent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in the residential care. *Korea Journal of Parent Education*, 5(1), 23-42.
- KBS News.(2013. 2. 27). '셋째 딸'출산 증가...초저출산국 탈출하나? Retrieved from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19203](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19203).
- Kemp, V. H., & Page, C. K.(1987). Maternal prenatal attachment in normal and high-risk pregnancie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16(3), 179-184.
- Kim, M. Y.(2009). A comparative study of the factors effecting on marital satisfaction by age cohort.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6, 35-62.
- Laxton-Kane, M., & Slade, P.(2002). The role of maternal prenatal attachment in a woman's experience of pregnancy and implications for the process of care.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0(4), 253-266.
- Lee, B.(2003).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e-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1), 133-153.
- Lee, S. M., & Jang, J. M.(2009). A study an parent efficacy and child rearing knowledge of parents in pregnancy.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251-273.
- Lee, Y.(2010). Conjugal role sharing on women's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1), 103-131.
- Lindgren, K.(2001). Relationships among maternal-fetal attachment, prenatal depression and health practice in pregnancy.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4(3), 203-217.
- LoBiondo-Wood, G.(1985). The progression of physical symptoms in pregnancy and the development of maternal-fetal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 Mercer, R. T., & Ferketich, S. L.(1988). Stres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anxiety and depression during pregnanc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0(2), 26-39.
- Mikhail, M. S., Freda, M. C., Merkatz, R. B., Polizzotto, R., Mazloom, E., & Merkatz, I. R.(1991). The effect of fetal movement counting on maternal attachment to fetus.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65(4), 988-991.
- Moon, H. R.(1998).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ed by mother's social support networks and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oon, H. J.(1999). The influence of working moth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on the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6), 97-107.
- Müller, M. E.(1989).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Müller prenatal attachment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 Müller, M. E.(1993). Development of the prenatal attachment inventor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5(2), 199-215.
- Norbeck, J. S., & Anderson, N. J.(1989).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nxiety in mid- and late-pregnancy among lower income women.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2(5), 281-287.
- Park, Y. Y., & Rha, J. H.(2003). A study on childrearing belief and parental efficacy.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2(3), 287-301.
- Pollock, P. H., & Percy, A.(1999). Maternal antenatal attachment style and potential fet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23(12), 1345-1357.
- Siddiqui, A., & Hägglöf, B.(2000). Does maternal prenatal attachment predict postnatal mother-infant interaction? *Early Human Development*, 59(1), 13-25.
- Siddiqui, A., Hägglöf, B., & Eisemann, M.(1999). An exploration of prenatal attachment in Swedish expectant women.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17(4), 369-380.
- Siddiqui, A., Hägglöf, B., & Eisemann, M.(2000). Own memories of upbringing as a determinant of prenatal attachment in expectant women.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18(1), 67-74.
- Sim, M. J.(1993).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usband's support behavior perceived by postpartum women in pregnancy. *Journal of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18, 369-382.
- Sjögren, B., Edman, G., Widström, A. M., Mathiessen, A. S., & Uvnäs-Moberg, K.(2004). Maternal foetal attachment and personality during first pregnancy.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2(2), 57-69.
- Vedova, A. M. D., Dabrassi, F., & Imbasciati, A.(2008). Assessing prenatal attachment in a sample Italian women.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6(2), 86-98.
- Won, S. H., & You, Y. D.(2006).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eparent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D. W. Winnicott's object relations theor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1(1), 1-33.
- Yakasem, P., & Chaiyasung, P.(2012). Effect of prenatal attachment promoting program on maternal-fetal attachment in teenage pregnant women. *Journal of Nursing Science & Health*, 35(3), 19-25.
- Yi, J. H., & Choi, Y. H.(2010).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1), 19-32.
- Zelkowitz, P., Schinazi, J., Katofsky, L., Saucier, J. F., Valenzuela, M., Westreich, R., & Dayan, J.(2004).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pregnant immigrant women. *Transcultural Psychiatry*, 41(4), 445-464.

접수일 : 2013년 07월 12일

심사일 : 2013년 08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24일